

두차례 연기 광주비엔날레 감독 입국·작품 운송 준비 시작

광주극장·CGV·롯데시네마, 명작 재개봉

설했던 그 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제13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당초 2월26일에서 4월 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해 행사 현수막이 걸린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모습.

2월26일서 4월1일로 개막 연기...행사 홍보 등 강화해야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예정대로...1차 마스터 플랜 확정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 19 여파로 전시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하는 등 우려곡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작품 운송 등 전시준비도 본격화 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오는 2월 26일 개막할 예정이었던 제 13회 광주비엔날레를 오는 4월1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재단은 당초 지난해 9월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로 이미 한차례 연기한 터라 또 다시 개막을 늦추는 것에 부담이 있지만 유럽 등 세계적으로 코로나 19가 꺾이지 않으면서 결국 두번째 연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전시 폐막일은 기존 일정한 5월9일을 유지, 행사 일정은 전체 73일에서 39일로 대폭 축소된다.

재단은 지난해 행사를 연기하면서 개막 일정을 최대한 늦추길 원했으나, 같은 전시장을 사용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9월부터 열릴 예정으로 있어 5월까지의 전시장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었다.

재단은 개막이 연기되면서 관람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폐막 일정을 2-3주 늦추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예술감독, 작가들과의 계약 기간 문제 등이 얽혀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새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터라 연장을 고려치 않기로 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온-오프라인 결합행사로 치러지면서 지난해 1차 연기 당시 예산이 증액된 상황이며, 이번엔 일정이 축소되면서 관리비용 등은 줄어들 전망이다.

행사 개막 일정이 두번이나 연기되면서 행사를 알리는 홍보 등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후속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일정 연기 검토와 별개로 코로나 19 시대에 맞춰 행사를 준비중이다. 비엔날레는 '떠오르는 마음'을 맞이하는 영혼 (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총 49개국 69여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지만 나타샤 진발라와 테프네 아야스 예술감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작가들의 입국이 불가능해지면서 전시를 온라인으로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나타샤 진발라 감독은 오는 16일, 테프네 아야스 감독은 오는 2월말 입국해 2주간의 자가 격리를 거친 뒤 본격적으로 전시장 구성, 작품 설치 등에 나서게 된다.

재단은 현재 주 행사장인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공간 구성 작업을 진행중이며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속속 들어오면서 소독, 방역 등을 거쳐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간다. 또 전시장 관람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관람객들을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오는 9월2일부터 10월31일까지 'D Revolution (다레볼루션 : 디자인 혁명)'을 주제로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일정대로 열린다. 광주비엔날레가 행사 개막을 연기하기는 하지만 일정을 축소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행사 준비가 가능, 오는 5월말부터는 본격적인 전시장 구성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김현선 총감독의 지휘 아래 전시와 관련한 1차 마스터 플랜이 나온 상황이다.

'오색천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오는 9월1일 목포문화회관과 진도 운림산방에서 개막하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역시 예정대로 운영된다. 두 행사 모두 온-오프라인 전시를 병행하며 '해외전' 등이 포함돼 있어 코로나 19 상황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는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지명도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꼭 개최해야한다는 생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화양연화'
- '해피투게더'
- '늑대와 춤을'
- '키드'
- '노팅힐'
- '라라랜드'
- '너의 이름은'
- '신과함께'
- '나이프스 아웃'
- '메멘토'
- '타임 패러독스'
- '완벽한 가족'

코로나19로 영화 개봉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미뤄지면서 당빈 극장가에 작품성과 대중성을 검증받은 영화들의 재개봉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명작'들이 다시 돌아온 것.

지난해 개봉해 인기를 모으고 있는 '화양연화'는 광주극장, CGV에서 상영중이며, 왕가위의 또 다른 작품인 장국영-양조위 주연 '해피투게더 리마스터링'도 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 작품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보영과 아위의 슬프고 매력적인 러브 스토리를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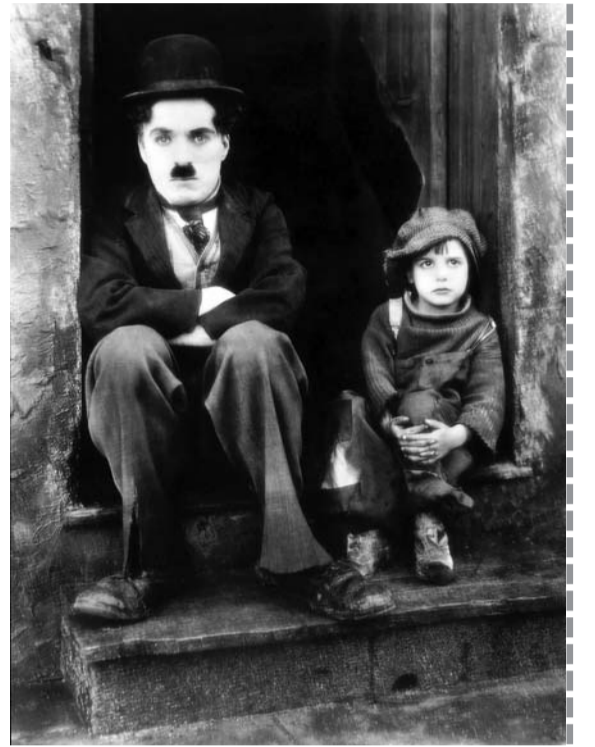
여기에 '늑대와 춤을', '라라랜드', '신과함께', '키드', '노팅힐' 등이 재개봉 라인업에 합류,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30년만에 다시 관객과 만나는 '늑대와 춤을-디 오리진'은 14일 CGV, 롯데시네마, 광주극장 등에서 재개봉한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케빈 코스트너가 제작·주연·연출을 모두 맡은 이 작품은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인디언 수우족의 삶에 매료된 전쟁 영웅 존 던바 중위가 '늑대와 춤을'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그 속에 녹아드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제6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각색상, 촬영상 등 7개 부문을 석권한 바 있다.

32년만에 재개봉하는 '키드'는 오는 21일 광주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천재 아티스트로 꼽히는 찰리 채플린의 첫 장편 영화이자 대표작이다. 1921년 1월 21일 처음 공개됐으며, 버려진 아이 존과 그를 사랑으로 품은 떠돌이 찰리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24일부터는 CGV 광주터미널점에서 셸린 시아마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상영한다. 18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원치 않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귀족 아가씨 엘로이즈와 그의 결혼식 초상화 의뢰를 받은 화가 마리안느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의 기억을 담은 영화다. 여성의 삶과 사랑을 섬세한 감성 표현과 그림 같은 영상으로 담아내 호평을 받았으며, 제72회 칸 영화제에서 경쟁상과 쿼터종려상을 수상했다.

롯데시네마 수완점에서는 '노팅힐', '라라랜드', '너의 이름은' 등을 지난 13일부터 상영중이다.



'키드'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으로 꼽히는 영화 '노팅힐'은 지난 1999년 개봉해 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최고의 로맨스이자 인생 영화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작품이다. 세계적인 스타 '애나 스콧'과 노팅힐의 책방 운영자 '윌리엄 테커', 아주 평범한 사랑을 기다리는 여자와 너무 특별한 사랑이 두려운 남자의 꿈 같은 로맨스를 담은 영화다.

'라라랜드'는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 서로의 무대를 완성해가는 배우 지망생과 재즈 피아니스트를 통해 꿈을 좇는 청춘의 열정과 사랑을 그린 뮤직 로맨스이며, '너의 이름은'은 꿈속에서 몸이 뒤바뀐 도시 소년 다기와 시골 소녀 미츠하가 만들어가는 기적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한국영화 사상 처음으로 시리즈 두 편이 모두 '천만영화' 반열에 오른 '신과함께' 시리즈도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서 상영중이다. 지난 7월 재개봉한 1편 '신과함께-죄와 벌'은 저승에서 온 망자가 그를 안내하는 저승 삼차사와 함께 49일 동안 7개 지옥에서 재판받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지난 2018년 개봉 당시 1440만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이다.

이어 다음달 21일에는 속편 '신과함께-인과 연'이 스크린에 오른다. 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을 앞둔 저승 삼차사가 그들의 1천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작품 역시 1000만 관객을 넘기면서 한국영화사를 새로 썼다.

이밖에 '나이프스 아웃', '메멘토', '타임 패러독스', '완벽한 가족' 등도 상영중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노팅힐'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